

오늘의 날씨와 생활

5월 4일 목요일 음 3월 15일 (7월)

목요일론

기상정보

흐리고 비



제주에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7°C, 낮 최고기온은 19-22°C로 전망된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으니 항해 및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 오전  | 강수 확률 | 오후  |
|-----|-------|-----|
| 90% | 제주    | 90% |
| 90% | 성산    | 90% |
| 90% | 고산    | 90% |
| 90% | 서귀포   | 90% |

|             |           |
|-------------|-----------|
| 해돋이 05:43   | 달뜨기 17:54 |
| 해짐 19:19    | 달지기 04:45 |
| 물때 만조 09:42 | 간조 04:06  |
| 22:19       | 16:12     |

식중독지수 주의, 감기가가능지수 관심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흐리고 비 19/27°C  
모레 흐리고 비 17/20°C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월드뉴스

日 기사다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

개헌 찬성 50~70%대로 높아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조기에 실시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기사다 총리는 일본의 헌법기념일인 3월 11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임기 중 개헌을 실현하고 싶다고 말해 총재에 당선됐다”며 “(개헌 실현의) 강한 생각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사다 총리는 “현행 헌법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맞지 않거나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있다”며 “개헌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인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권 자민당이 개헌 4개 항목으로 내세운 헌법 9조에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명기, 합구(선



기사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이 “모두 현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4월 전국 유권자 2055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1%로 조사되는데 2004년(6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이날 보도했다. 개헌 찬성 의견은 지난해(60%)에 이어 2년 연속 60%를 넘겼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한욱 편집국장 이윤희  
제주의 대표신문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정찬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기획경영본부장

지난달 4월 21일부터 3일간 열렸던 제57회 도민체육대회가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과감한 협력과 도전으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4년간 침체됐던 제주 체육활동과 향후 제주 체육 발전 방향에 값진 활력을 불어넣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회 개회식 운영과 관련해 종전과 다른 시도로 참여관객과 도민의 큰 호응을 얻어내며 향후 대회 운영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단순히 선수단 중심의 스포츠 행

스포콘 그리고 지속가능한 제주 체육 발전 동력

사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 예술 공연과 신기술을 접목한 퍼포먼스 등으로 행사 운영에 신선한 패러다임을 만들어냈다.

연출 방향에서 스포츠 행사와 콘서트를 병행 운영해 제주의 스포츠와 문화 역량을 모아 나가자는 ‘스포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고 ‘스포콘 I, 화합과 공존의 울림’을 시작으로 ‘스포콘 II, 여정의 시작’, ‘스포콘 III, 약속된 미래와 원대한 꿈의 비상’을 기획해 펼쳐 보였다.

한림민속보존회의 손님맞이 곁공과 함께 제주의 미래자원으로 성장해 나가는 ‘노래하자 춤추자’ 어린이공연, 청소년 다문무용단과 ‘광개토사물놀이&비보잉’ 전문예술 공연, 국악과 플라멩코가 어우러진 코리안 집시 사운드 ‘소리께

페’의 공연으로 세대를 아우른 동시에 제주다운 소재를 활용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무대에 올려 관객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익히 알려진 베토벤 교향곡 9번 4악장 ‘합창’을 제주도립예술단과 1000여 명의 도민합창단이 함께 펼친 ‘스포콘 II’는 지금까지 제주 어디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감동으로 1만여 청중의 귀를 놀라게 만드는 즐거움을 제공했다.

특히 ‘스포콘 III’에서는 최첨단 ICT를 결합한 VR드라마 기술과 메타버스 퍼포먼스가 개회식 행사의 대단원의 막을 장식했고 오영훈 지사는 국내 유일의 VR드라마 작가 엄동균과 함께한 메타버스 퍼포먼스에서 도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며 “우리 제주가 대한민국

의 미래 변명을 이끄는 희망의 섬

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원동력! 힘이 필요하다”면서 “스포츠가 도민 화합의 힘이 됐듯 도민 체육대회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안겨주는 축제가 되어야 하고 지속가능한 제주로 나아가는 힘을 도민체전에서부터 모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여기에 “관행적으로 열리는 단순한 행사를 뛰어넘어 도민의 삶을 변화시킬 새로운 기회로 도민체전이 거듭되어야”한다고 덧붙였다.

열린마당

노인의 행복 곧 제주의 행복



고정운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장

제주가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8159명이다. 이중 노인인구 비율은 16.6%로 제주 사회는 이미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상태로 보인다. 무려 제주 43개 읍면동 지역 중 노인인구 비중이 초고령사회에 달한다. 그래서 필자는 ‘노인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지 생각해 본다.

노인을 위한 제주 만들기의 첫째는 노인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노인이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

에 대한 공격심 회복과 생산가능인구의 부담스러운 존재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

둘째 노인 일자리 확보와 다양한 욕구 반영이 필요하다. 노인 일자리는 고령사회 문제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신 노년 세대’의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생산성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노인 돌봄 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 수요자 중심의 제도 정책 방향 수립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목표로 수요자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한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 사회가 너무 빨리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다는 걱정보다는 ‘우리는 젊어 보였고 언젠가는 늙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한 노인이 행복한 제주 만들기에 우리가 모두 함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 불법 주정차, 도민 협조가 절실하다



장세영 제주서부소방서 애월119센터

지난달 28일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적발된 승합자동차는 9만원, 승합승용차는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재난 현장 접근성 강화와 소방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민 의식 개선 차원에서 실시했다. 출퇴근길의 정체 구간을 지날 때뿐만 아니라, 소화전 앞에 주정차 또한 현장 활동에 큰 지장을 준다.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소방용수시설

앞에 차가 버젓이 주차됐다고 상상해 보라. 소방관만 재난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다. 도민들의 협조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지 4년이 됐는데도 현장 상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꾸준한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지 못하도록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실제로 불법 주정차를 소방장비를 통해 강제로 조치하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타 시도 소방에서는 강제처분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소방관들 에겐 사실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도민들의 작은 협조가 모여서 한시라도 일찍 불을 끌 수 있다.

골목에 차를 세울 때, 그곳이 소화전 앞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불길기 번지는 동안 소방관들의 마음도 애가 탄다.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은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성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뿌리 형성과 뿌리손상 방지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목을 말합니다. 이식할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뿌리 형성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갈 / 금갈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랑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게정원농장은 종자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게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1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2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

**감귤묘목, 포트묘목 분양**

**※ 만감류**  
● 윈터프린스 1년생~2년생  
● 카라향 1년생 ● 황금향 1년생  
● 천혜향 1년생 ● 레드향 1~2년생  
● 한라봉 1년생 ● 탐나는봉 1년생  
● 미니향 3년생 ● 레몬 4년생,  
● 제라몬 3년생 ● 미니몬 1년생  
● 하갈(아마나스)1~2년생

**※ 극조생 & 조생**  
● 궁천조생 1~4년생 ● 유라조생 1~2년생  
● 하례조생 2년생 ● 오히라베니와세 1~2년생  
● 히노야까리 4년생

**※ 포트묘목**  
- 유라조생, 하례조생, 윈터프린스, 레드향, 하갈, 천혜향, 오히라베니, 제라몬, 미니몬, 황금향, 한라봉

민성종묘는 종자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325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 010-8948-1082**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본 · 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원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 열린 기술 습득 ◆ 기술인력 개발  
◆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 (064)725-0993